

보도	2025.8.7.(목) 11:00	배포	2025.8.7.(목)		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	책임자	국 장	임권순	02-3145-7580
		담당자	팀 장	김용진	02-3145-7590
	금융투자협회 증권2부	책임자	본부장	천성대	02-2003-9013
		담당자	부 장	임병태	02-2003-9110

금감원-금투협,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 공동 개최

I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 개요

- '25.8.7.(목),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
- 자본시장 분야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美 관세부과 등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에 대해 상호 논의하고, 향후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개인·글로벌 투자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

자본시장 현장 전문가 간담회 개요

- ☑ 일 시 : '25.8.7.(목) 09:30~11:00
 - ☑ 장 소 :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
 - ☑ 참석자 :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, 금융투자협회장,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10명 등
 - (금 용 감 독 원)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, 임권순 자본시장감독국장
 - (금융투자협회) 서유석 회장, 천성대 증권·선물본부장
 - (현 장 전 문 가*) 리서치(3명), 리테일(2명), 해외社(3명), 공·사모운용사(2명)
- * (리서치&리테일) 한국투자증권, 신한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NH투자증권, 한화자산운용 (해외IB&운용사) 제이피모건, HSBC, 베어링자산운용 (공·사모운용사) VIP자산운용, 퀴드자산운용

Ⅱ 주요 논의내용

□ 자본시장 현장 전문가들은,

- 美 관세 타결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어 국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
- 또한, 최근 정부에서 주도한 상법 개정이 국내외 투자자의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*하여 자본시장 성장을 견인했으며

* 글로벌 투자자 및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확인

- 시장은 향후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사주 소각 및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
- 최근의 세제 개편 이슈,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일부 기업의 실적 저하 가능성 및 美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으로 국내 시장이 영향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

□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,

-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우리 주식 시장이 그간의 긴 침체기를 지났으며,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대이동하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
- 금감원은 향후에도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하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음

□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은,

-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혁신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,
-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계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음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분 류	주요 의견
주식시장 평가 및 전망	▶ (관세) 관세협상 결과는 대체로 시장에서 예상한 수준으로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. 다만, 업종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며 향후 주가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 ▶ (하반기 전망)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것은 긍정적임. 다만, 관세로 인한 국내 일부 기업의 실적 저하 가능성 및 美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으로 국내시장이 영향 받을 가능성도 우려됨 ▶ (상법 개정) 전반적으로 상법 개정에 긍정적이며, 특히 이사의 의무 사항에 소액주주 권리보호가 추가된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 - 단기적으로 경영권의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 우려가 있으나, 향후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로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등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 기대
주식시장 국내외 투자자 의견	▶ (리테일) 테마주 중심 단기 투자보다는 건전한 장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필요 ▶ (증시 부양) 배당 분리과세, 자사주 소각 등을 포함한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-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, 합병·분할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개 매수제도 도입 등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필요
기타 의견	▶ (퇴직연금) 연금 자산 내 위험자산 투자한도 70% 규제를 완화하고, 디폴트 옵션 제도개선 등 장기적 시각으로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필요 ▶ (공모펀드) 공모펀드 가입절차를 단순화하고 운용사의 운용역량을 강화하는 등 장기투자 중심의 공모펀드 활성화가 필요 ▶ (MSCI) 신흥 지수 내에서도 한국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, 증시 선진화 등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선진지수 편입은 필요 - 그럼에도 선진지수 편입시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자금 유입이 예상되나 신흥 지수 대비 선진지수 내 비중이 적을 경우, 자금 순수출 우려도 있음 ▶ (외국인 투자 편의성) 외환 거래 규제 완화, 영문 공시 확대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지속 제고할 필요